

# ‘책 읽을 곳 없는’ 신축 선운 도서관

### 광산구 86억 투입 3월 개관... 열람실 없고 오후 6시 문닫아 주민들 “도서관이냐 동사무소냐” 반발... 열람실 설치 요구

“새로 지은 도서관에 책 읽을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주 광산구가 선운지구에 수십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정작 책을 읽을 열람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반쪽 도서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선운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2만여명의 주민이 입주하

자 이들의 문화생활시설의 하나로 사업비 86억원을 들여 선운도서관을 신축 중이다. 선운도서관은 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23억원과 시비 18억원, 구비 45억원을 확보해 공사에 들어갔고, 오는 3월 개관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0%다.

하지만 이 도서관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실이 없고, 책이 비치된 76석의 자료실만 있다. 책을 읽으려면 이 자료실을 이

용해야 하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도서 관리 문제 등으로 야간 개방이 어려운 상태다. 광산구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대부분의 도서관이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실제 지난해 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관한 장덕도서관은 581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있고, 첨단도서관과 신가도서관도 각각 500석의 열람실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비치뿐만 아니라 책을 자유롭게

게 읽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김모(31·광산구 선암동) 씨는 “새로 짓는 도서관에 열람실을 제외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광산구가 야근 등 운영·관리의 불편이 예상되자 의도적으로 배버린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선운도서관은 자료 제공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부터 열람실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 우치공원 유희시설지구 민간투자 제안자 공모

광주시가 우치근린공원 내 놀이시설을 종합적인 체험활동형 명품 테마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우치근린공원 유희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를 공모한다.

민간투자 대상 지역은 우치공원 내 유희시설지구 14만1536㎡로, 참가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이며 총사업비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제안자가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일 우치공원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공모 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월4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2월16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시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안서를 선정,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우치공원 유희시설은 (주)금호리조트가 1991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장해 20년간 운영해 오다 지난 2011년 6월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2010년, 2012년 2회에 걸쳐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를 공모했다.

/최희종기자 chae@



활기 넘치는 목포 위판장 4일 새벽 5시 목포시 산정동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새해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과 함께 첫 위판이 진행됐다. 중도매인들이 매물로 나온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사에게 수신희를 보내며 가격을 흥정하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하반기부터 서울~목포 고속열차 골라 탄다

### 수서발 KTX 운행... 기존 KTX보다 10분 단축·10% 저렴 철도노조 “민영화 노린 수순...국민 안전 위협” 반발

서울 강남 수서역~목포역(부산역)을 운행 구간으로 하는 제2의 고속열차(SR고속열차)가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열차와 출발역은 다르지만 천안아산역부터는 같은 노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주)SR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고속열차가 이르면 올 하반기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총 32편(대)의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지만 경부·호남선에 몇 대씩, 하루 몇 편씩 운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달리 SR열차는 수서~동탄~지제역을 거쳐 평택부터는 KTX와 고속철 노선을 함께 쓴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SR고속열차는 천안아산역, 오송역,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나주역, 목포역에 정차한다. 천안아산역부터 탑승하는 승객은 두 열차의 운행시간·운임·서비스 등을 비교한 뒤 골라 탈 수 있게 됐다.

SR고속열차는 무정차로 달릴 때 수서역~목포(354.2km) 1시간50분대, 수서역~부산 2시간10분대로 예상된다. 다만, 저속 운행해야 하는 도심구간을 건너뛰고 수서에서 출발하기에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보다 10여분씩 단축된다

는 게 SR측 설명이다. 운임은 KTX보다 10% 저렴하게 책정됐다. (주)SR과 현대로템은 지난해 10월 SR고속열차를 처음 선보였다. 열차는 총 10량으로 구성됐으며 설계 최고속도는 330km/h로 KTX 산천, 호남고속철과 같고 좌석 수는 410석이다.

한편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수서발 KTX(SR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주)SR은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 역 업무, 안전업무 등 철도운영의 핵심 업무 일체를 외주위탁해 꺾이기만인 철도운영회사”라며 “SR고속열차 도입으로 시간 단축, 고객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결국에 가선 승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02:51  
해짐 17:34    달짐 13:59

#### 기온 폭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2/5	보성	비/눈	후텁	0/4	
목포	비/눈	후텁	2/5	순천	흐림	4/6	
여수	비/눈	후텁	4/6	영광	흐림	0/3	
나주	흐림	1/4	진도	비/눈	후텁	2/6	
완도	비/눈	후텁	2/6	진주	흐림	0/3	
구례	흐림	0/4	군산	흐림	0/3		
강진	비/눈	후텁	0/5	남원	흐림	-1/3	
해남	비/눈	후텁	0/5	속산도	비/눈	후텁	4/6
장성	흐림	1/4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5~3.0	북~북동	1.5~2.5

#### 생활지수

관심	계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여수	10:22	03:21
	22:20	16:20
목포	06:05	12:02
	17:45	23:58

####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21(화)
☀	☀	☁	☁	☀	☀	☀
-2/5	0/3	-2/2	-3/2	-3/2	-3/3	-2/5

## 지난해 전남 하루 평균 7.2건 화재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하루 평균 7.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별로는 비주거 26.5%(701건), 주거 23%(346건), 임야 13.3%(352건), 차량 11.2%(297건), 기타 26%(689건) 순이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56%(1484건), 전기 20.7%(548건), 기계적 9.3%(247건), 원인 미상 7.6%(201건)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홍보와 연령에 맞는 소방안전교육, 축사 화재예방 등이 화재피해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꽃집 간판에 핀 신비의 꽃 ‘우담바라’ 4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꽃집 간판에 불교에서 상서롭게 여기는 ‘우담바라’가 피었다. 확대 된 사진 속 우담바라는 동전보다 작은 원을 그리며 무리지어 피어있다. 시민들은 “새해 호남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신기해 하며 이곳을 찾고 있다. 우담바라는 풀잡자리의 알로 알려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www.at.or.kr

www.3.0.kr

우리 농수산식품의 유통개선, 수급안정, 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진흥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aT. 2016년에도 우리 농수산식품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